

고규홍의 '나무 생각'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더 멀리 씨앗을 퍼뜨려 생존 영역을 확장하는 건 모든 나무의 생존 본능이다. 사람의 눈에 띄이든 안 띄이든, 세상의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운다.

꽃 피고 지는 시기로 세월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그럴 만큼 계절의 흐름이 혼란스럽던 지난봄에도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꽃을 피웠다. 꽃 지지 아재 열매 맺고 씨앗을 키울 차례에 돌입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밋밋하든, 모두가 꽃을 피우던 지난봄. 무화과나무는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부터 먼저 맺었다. 그리고 어느 나무들이 도담도담 열매를 키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여름 햇살을 한껏 받아들이며 한창 열매를 키우는 중이다. 꽃(花) 없이(無) 열매(果)를 맺는다는 뜻의 이듬처럼 무화과나무는 정말 꽃송이를 보여 주지 않고 열매를 성숙시켜 간다.

대관절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가당기나 한 일인가.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한다. 실제로 무화과나무도 어느 나무들이 앞다퉁 꽃을 피우는 봄에 꽃을 피웠다. 다만 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어느 짐승의 눈길에도 포착되지 않도록 숨어서 피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무화과가 아니라 은화과(隱花果), 즉 숨어서 핀 꽃으로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야 한다.

봄이면 무화과나무의 잎겨드랑이에서는 구슬 모양의 초록빛 돌기가 올라온다. 꽃은 이 돌기 안에서 무성하게 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돌기는 여러 송이의 꽃을 감싼 꽃주머니인 셈이다. 식물학에서는 이를 화탁(花托)이라고 부른다.

꽃은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옮기는 혼사 즉 꽃가루받이를 채비했다는 신호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꽃은 어떻게 꽃가루받이를 이루어야 할까. 만일 꽃가루받이를 이루지 못했다면 번식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진작에 멸종했을 것이다. 필경 누군가가 견고한 꽃주머니 안쪽의 꽃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무화과나무가 1억 년 쯤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 오도록 도운 것은 길이 2밀리미터가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말벌 종류인 무화과좀벌이다. 무화과좀벌은 무화과나무의 꽃주머니가 돈을 즈음하면 무화과나무를 찾아온다. 지난 일억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 온 약속이다.

무화과좀벌은 무화과나무 꽃주머니 끝 부분의 미세한 구멍을 찾아 안으로 투입한다. 위낙 좁다란 구멍을 파고들다 보니 무화과좀벌은 날개가 찢겨 나가고 몸통의 상당 부분은 일수 터져 버리고 만다. 하지만 무화과좀벌은 일억 년 동안 이어 온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꽃주머니 안쪽으로 들어간다. 마침내 다 헤어진 몸통이로 꽃주머니 안에 들어선 무화과좀벌은 꽃

송이들을 해집으며 꽃가루받이를 이뤄 준다. 약속은 수행했지만 그 사이에 기진맥진해진 무화과좀벌은 제 몸 안에 품었던 알을 꽃주머니 안에 내려놓고 짙았던 생을 마감한다.

다시 꽃주머니 속의 시간이 적막하게 흐른 뒤 알은 부화한다. 한데 새끼 무화과좀벌 중 수컷에게는 날개가 없다. 수벌은 태어나자마자 암컷과의 교미를 마치고 죽기도 하지만, 일부는 여러개 날갯짓하는 암벌이 꽃주머니를 벗어난다 또 다른 꽃을 찾아가도록 꽃주머니의 구멍을 넓힌 뒤 생을 마친다. 암벌은 수벌의 도움으로 꽃주머니를 탈출해 비행을 시작한다. 암벌을 떠나 보낸 수벌은 꽃주머니 안에 주검으로 남는다. '비건'이라고 부르는 채식주의자들이 무화과를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식용하는 무화과는 무화과좀벌의 도움 없이 열매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무화과좀벌의 시체를 먹어야 할 일은 없다.

하나의 생명이 온전히 제 생명의 살림살이를 이어간다는 건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온갖 생명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연의 가르침이다. 무화과나무와 기껏해야 2밀리미터도 안 되는 미세한 생명이, 홀로 아파다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우매한 사람살이에 맡 없이 건네 오는 큰 울림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폐렴구균 예방접종



유진영 광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과장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3가를 1회 접종하거나, 13가와 23가를 순차적으로 1회씩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65세 미만 고위험군은 13가와 23가를 순차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13가는 평생 동안 1회 접종하면 된다. 65세 이전에 23가를 접종한 경우에는 피접종자의 상태에 따라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2회 23가를 재접종한다. 23가의 최초 접종 연령이 65세 미만인 만성질환자(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뇌척수액 누수, 인공와우 삽입 환자는 65세가 넘어 이전 23가 접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1회 재접종해 23가를 총 2회 접종한다.

23가의 최초 접종 연령이 65세 미만인 면역 저하자(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전신적인 악성종양, 면역억제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 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고령 장기 이식, 다발성 골수종), 무비중 환자는 최초 23가 접종 후 5년이 지나서 1회 재접종해야 한다. 23가를 재접종하는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2회 접종으로 완료하고, 23가를 재접종하는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65세가 넘어 가장 최근 23가 접종 후 5년이 지나 한 번 더 재접종해 23가를 총 3회 접종한다.

13가와 23가를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경우에 서로 간의 접종 간격은 최소 1년이며 면역 저하자와 뇌척수액 누수, 인공와우 삽입 환자는 13가 접종 후 최소 8주 뒤에 23가를 접종해야 한다.

폐렴구균의 혈청형은 90여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

중 한가지 혈청형의 폐렴구균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다른 혈청형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폐렴구균 백신의 적용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폐렴구균 감염증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한다.

폐렴이 진단된 환자가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왜 폐렴에 걸린 거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에 대한 항체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폐렴 원인균들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다. 23가 백신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50~80%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침습적인 폐렴, 중이염, 무비중염 등을 예방하는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다. 13가 백신은 연구 결과 성인에서 백신 혈청형의 폐렴구균 폐렴을 대략 45%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폐렴구균 백신은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경미하며 수일 후 호전되는 일시적인 반응이다. 이상 반응 중 가장 흔한 것은 접종 부위 부어 오름, 발적, 통증 등의 국소 이상이며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폐렴구균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과 질환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기고

도초에 가면 보인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겨덕 순매와 말년을 보낸 곳이다. 약초와 좁쌀로 빛은 막걸리를 빚 삼아 흑산도를 오가며 16년을 살았다. 흑(黑)은 어둡고 두렵다며 빛이 보인다는 자(玆)로 바꾸고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도감 '자산어보'를 집필하고 복성재(復性齋)를 열어 학동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손암이 순매와 낳은 아들, 학소의 후손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금계국(金雞菊)이 지천이다. 토종 들꽃을 다 밀어냈다. 비탈면을 따라 예쁘게 보이는 해도, 우리 생태계를 어지럽힌다. 식용 황소개구리,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같은 상황이다. 필요하다며 수입하고 장려할 때는 안제고, 그저 잡아내고 없애고 뽑아내기만 반복할 뿐 책임 지는 사람은 없다. 절개지에 사용하는 녹생토 역시 마찬가지다. 이젠 우리 야생화 종자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할 때가 되었다.

도초도(都草島)는 그 이름처럼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십여 년 전, 전남도에서 '사파리 아일랜드'를 계획했던 곳이다. 부지 매입까지 이루어졌지만, 세월이 가며 흐지부지됐다. 동물 복지를 시험하는 곳으로, 종(種)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곳으로 변할시킬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쳤다. 거기 담벼락 안의 고양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10여km 거리의 추포~비금 바닷길을 연결하면 되지만, 착공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암대 남강여객터미널에서 비금 가산항까지 먼저 간다. 한 시간에 한 번, 40여 분 거리다. 아침 5시 반부터 하루에 16번, 밤 10시에 마지막으로 나갔다가 돌아온다. 암해-암대 천사대교가 개통되며 야간 배길 운항이 가능해진다.

이어지는 찾길을 따라 덕산바위와 대동염전을 지나 섬초가 오가는 서남문대교를 건넌다. 1996년 여름에 개통한 937m의 해상교량이다. 너무 돈을 적게 들이다 보니 폭은 좁고 처저기까지 했다. 그래서 15톤 덤프트럭이 짐을 알맞게 실어도 지날 수가 없다. 법을 어기든지, 도선을 다시 해야 한다. 찾길로 차가 다닐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빨리 고쳐줘야 한다.

갯바람을 막는 대밭은 여전히 있다. 애기뚫배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다. 시목해변의 모래알처럼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계속 발굴해 나가면 좋겠다.

다른 섬에서도 안락한 땅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12사도 길, 퍼플곡, 조각품과 수석·분재 등 각종 박물관, 나무와 꽃이 새로운 일상을 펼쳐낸다. 그 끝은 어디일까? 세계교량센터나 바다낚시터, 해양리조트, 마리나, 흑산공항 등의 풍광이 더 필요하다. 흥어가 제 길을 가듯이 신안이 꼭 지나야 할 길이다. 낙후·소멸·저출산을 넘어 사람들이 몰려오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기저기 해변에서 말을 달리는 남녀노소의 모습이 그려진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디오 프로그래미 흥을 더한다.

社說

'부동산 내로남불' 국민의힘도 조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 조사에서 부동산 불벌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의 의뢰에 따라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원 12명이 16건의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12명 전원을 일괄적으로 당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해당 의원은 김희재·김주영·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윤재갑·양이원영·오영훈·김수홍·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이 지역구인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겠다"며 탈당했고, 김희재(여수) 의원은 "정상 거래인데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앞으

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여차 없었으면 민주당이 그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는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며 어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약 5당도 어제 국민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핑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개장 앞둔 해수욕장 방역 대책 철저히

지난해 이때쯤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극심한 불안감 속에 지나야 했다. 이와 달리 올해의 경우는 일상 속에 뿌리내린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그리고 연령대별 백신 접종으로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형편이 나아진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두 번째 여름을 맞는다. 다음 달 초부터는 또 전남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된다. 발포·덕흥·나로 우주해수욕장 등 고흥 지역 해수욕장 11곳과 장흥 수문해수욕장 그리고 가마미·송이도 등 영광 지역 2곳과 관매도 등 진도 지역 4곳의 해수욕장이 9일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2개 시·군 56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난 110만여 명이 도내 해수욕장을 찾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다시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직도 여전히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 예방 접종률은 미미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욕장이 개장하게 되기 때문에 빈틈 없는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전남도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와 코로나 19 대응방 가동 등을 통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무기로 저사하는 안 된다.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은 올 여름 코로나19 방역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철저한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다른 부처 장관이 기재부 사무관에게 직접 연락해 정책과 사업을 논의할 정도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또한 기재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니 이른바 '갑종의 갑'인 셈이다. 담당 직원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공무원들은 국가 공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공사와 서민 대상의 저렴한 임대 주택 보급으로 인해 부채가 쌓인 주택공사가 하나도 결합됐기 때문이다.

관료제

하지만 공룡이 된 LH는 계속 그 규모를 키우고 임직원들의 연봉을 올리느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에는 소홀하고, 신도시 개발 등 '땅 장사'에 눈을 고정해왔다. 한 값에 외곽 토지를 수용한 뒤 용도를 변경해 건설업체에 땅을 분양했다. 건설업체들은 여기에 건축비나 수익 등을 불이니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했다. 결국 신도시 개발로 LH

와 건설업체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19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왕을 보좌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관료제는 20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국가가 성립되고 그 업무가 확대·심화되면서 관료제 또한 거대해졌다. 고도성장과 함께 '갑'이 된 기재부와 '공룡'이 된 LH는 이제 '관치'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의 균형 발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